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강의(11) '반야'를 그대로 쓰까, '지혜'로 번역해서 쓰까

'번역'은 문명사적 교류와 창조 과정의 과정에서 넘지 않으면 안 될 실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들어설 때 우리 또한 그 문명사적 상황에 부딪혔는데, 그 고민과 해결을 아쉽게도(?) 일본이 대신 해주는 바람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주도적 권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18·19세기에 걸쳐 서구문명과 문물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번역정착을 설치하여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 어휘들은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말의 적어도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전통적 개념이지만 의미가 달라진 것들을 포함하며 이 신조어들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언어체계를 구분해 주는 사전이 없습니다.

지금도 다들 "한자면 한자지, 뭐, 다를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시지, 전통적 한자와 근대적 한자 사이에 깊은 심연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마도 불교든 유교든, 동양철학을 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기가 버겁고 힘들다고 느끼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는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체계가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난

해함과 모호함, 그리고 오해가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아닌 되는 마당에 유효한 실체이나 학문적 축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 두 언어체계를 분명히 갈라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대의 언어체계를 존중하고, 전통한문 용어와 어법들을 과감하게 '해석'하는 용기와 결단력부터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달라진 언어를 전폭, 조건 없이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같은 풀이갈 수 없으니깐요. 일반인들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면, 그 책임은 대부분 동양철학을 하시는 분들의 책임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지금 열고 있는 이 강좌도 이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의 개념에서 어법, 문장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해부하여 당대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를 그대로 쓸 것이냐, '지혜'로 번역해 쓸 것이냐

'금강반야'를 설명하다가 또 엇길로 샀

습니다. 다시 기침 한번 하고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금강, 혹은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알듯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리하고, 견고하며, 그리고 무지 비쌉니다. 어떤 것도 잘라 버리면, 그 자신은 어떤 것에도 깨지지 않고, 그리고 결혼 예물이나 보석상에서 보듯이 비싸고 귀하기 그지없습니다.

반야가 바로 이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혜능 스님은 다이아

몬드와 불교의 니르바나 사이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너무 크고, 이 차이가 본질적인 것이었기에, 결국 원어인 열반을 그대로 쓰는 쪽으로 낙착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번역의 역사에서 늘 일어나는 일인데요. 언젠가 어느 한국 교포에게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할머니가 50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피자'라 지혜라고는 해도, 유교의 일상적 도덕규범이나 도가의 은둔적 자연관조와도 매우 다른 '특별한'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점이 너무 컸기에, 불교는 결국 번역어인 '지혜'보다 원어인 '반야'를 정착시켰습니다. 아시죠, 반야는 프라즈나(prajna)라는 산스크리트어를 '소리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열반(涅槃)도 마찬가지로 열반은 한자 자체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니르바나(nirvana)라는 말을 발음 나는 대로 적어놓은 것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니르바나도 무위(無爲)로 번역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장의 무위

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형태로 보면 피자 는 오히려 두툽한 개떡보다 오히려 넓은 '반대떡'에 가깝지요. 그 할머니는 아마도 '형태'보다도, 맛도 향연없고 천한 음식이라는 '가치' 쪽에 무게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격의(格義) 불교의 시대

어쨌거나 처음 번역은 이렇게 낯선 물건 의 형태로 속성, 가치 등에 입각해서 '근사

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략은 오해를 가급적 줄이면서, 주변에 익숙한 물건을 연상시키는 쪽으로 나갑니다. 불교 또한 이 단계를 거칩니다. 인도의 개념과 역사, 불교의 독특한 사유를 담고 있는 말들을 이방의 중국인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말들 가운데 가급적 비슷한 용어를 차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라즈나는 지혜 니르바나는 무위, 아누타라삼약삼보라는 무상정등각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격자에서 부당하게 빠져 나오고 잘려나간 의미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잘려나간 부분이 본질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괄적이고, 추상의 층위가 높은 것들, 그리고 맥락이 섬세하고 복합적인 개념들이 격자화에 갇히기를 포기하고, 원래의 이름 그대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지혜는 반야로, 무위는 열반으로, 무상정등각은 아누타라삼약삼보로 제 얼굴을 찾았습니다. 흡사 사람들이 외국에서 피자도 맛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도 피자 체인점이 늘어나면서 '서양개떡'이나 '서양반대떡'이 사라지고 본래 이름인 '피자'가 정착되듯이 말입니다.

아, 이 과정이 무슨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표준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불명 없이 따랐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교는 대단히 탈권위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느 편이든 선택은 역사의 심판에 맡겨졌습니다. 즉, 어떤 이름을 쓸 것인가는 오랜 세월이 걸친 대중들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두 종류의 번역어들은 서로 경쟁하다가, 한쪽이 완승을 거두거나, 또는 양쪽이 다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혜능 스님은 반야를 해설하면서 '당언(唐言)은 지혜(知慧)'라고 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혜능 스님 당대만 해도 두 번역어들이 서로 공존 각축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야는 최종적으로 원어가 승리한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이 용어가 불교 전통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이 근본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양 개떡'에서 '피자'로



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형태로 보면 피자 는 오히려 두툽한 개떡보다 오히려 넓은 '반대떡'에 가깝지요. 그 할머니는 아마도 '형태'보다도, 맛도 향연없고 천한 음식이라는 '가치' 쪽에 무게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격의(格義) 불교의 시대

어쨌거나 처음 번역은 이렇게 낯선 물건 의 형태로 속성, 가치 등에 입각해서 '근사

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략은 오해를 가급적 줄이면서, 주변에 익숙한 물건을 연상시키는 쪽으로 나갑니다. 불교 또한 이 단계를 거칩니다. 인도의 개념과 역사, 불교의 독특한 사유를 담고 있는 말들을 이방의 중국인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말들 가운데 가급적 비슷한 용어를 차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라즈나는 지혜 니르바나는 무위, 아누타라삼약삼보라는 무상정등각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격자에서 부당하게 빠져 나오고 잘려나간 의미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잘려나간 부분이 본질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괄적이고, 추상의 층위가 높은 것들, 그리고 맥락이 섬세하고 복합적인 개념들이 격자화에 갇히기를 포기하고, 원래의 이름 그대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지혜는 반야로, 무위는 열반으로, 무상정등각은 아누타라삼약삼보로 제 얼굴을 찾았습니다. 흡사 사람들이 외국에서 피자도 맛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도 피자 체인점이 늘어나면서 '서양개떡'이나 '서양반대떡'이 사라지고 본래 이름인 '피자'가 정착되듯이 말입니다. 아, 이 과정이 무슨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표준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불명 없이 따랐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교는 대단히 탈권위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느 편이든 선택은 역사의 심판에 맡겨졌습니다. 즉, 어떤 이름을 쓸 것인가는 오랜 세월이 걸친 대중들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두 종류의 번역어들은 서로 경쟁하다가, 한쪽이 완승을 거두거나, 또는 양쪽이 다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혜능 스님은 반야를 해설하면서 '당언(唐言)은 지혜(知慧)'라고 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혜능 스님 당대만 해도 두 번역어들이 서로 공존 각축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야는 최종적으로 원어가 승리한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이 용어가 불교 전통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이 근본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사파라...

원효 스님의 '30방'



조태호



원효 스님(617-686): 신라후기 지금의 경북 경신군 생. 32세에 황룡사로 출가.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길에 올랐다가 '일체유심론' 도리 깨침. <금강삼매경소> 등 23권 저술.

네터즌 교리문답

'크게 한번 죽으라(大死一番)'는 뜻은?

선어록에서 '크게 한번 죽으라(大死一番)'는 말이 자주 보이는데, 이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거짓 나'가 죽어야 한다는 말인지 구체적인 답만 기다립니다. (D '초발심')

답1: '대사일반'의 경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생사망념의 분별심이 없어진 경지를 말합니다. 이 경지는 천길의 절벽에서 손을 놓는, 목숨을 건 구도의 정신으로 정진해야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한번 죽는 큰 공양정진으로 일체의 자아(我相, 人相)를 죽이고 참된 깨달음으로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문')

답2: 살아서 망식이라고 하는 식정이 일어남으로서 모든 분별과 그로인한 집착이 생기게 되고 집착으로 인한 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득, 모든 식을 다 놓은 상태로 돌아가서 사물의 모든 경계에 무심해 보자는 말입니다. '백학간두 진일보'라는 말도, '죽어야 산다'는 말도 실로 그레아만이 진실로 살게 되는 것을 일러서 '크게 죽어 크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무심하건대 무슨 경계에 무슨 말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함을 알아(크게 죽을 줄 알아) 무심의 경계에 담담함으로서 무심의 바다에서 무심의 파도를 타면서 고기도 잡고 조개도 잡고 해엄도 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암만요')

답3: 인간이 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측된 삶에 매이게 됩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존재라고만 느낀다면 그때 어떤 자유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반드시 인과의 사슬 안에서 흘러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는 인과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성은 우리가 몸과 완전히 비 동일시되어 있을 때에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아가 크게 한번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 넘어 참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몸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때문이지요. ('지등명')

답3: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이니 '거짓 나'가 죽으란 말입니다. 거짓된 삶의 불을 끄라. 부패한 마음을 청소하라. 욕망에 불타는 육체를 소멸하라. 명성을 하며 삶을 깨끗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과객')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	7	8		
	2	9		10
3	11		4	12
			13	
5	14		15	
			6	

정답은 26면에

상식퍼즐

1. 부산의 유명한 해수욕장 2. 들기 좋게 꾸민 글씨 3. 한쪽의 발이 항상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며 달리듯 걷는 육상경기 4.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로 시작하는 윤동주 시의 제목 5. 바이올린과 첼로 이너바이젠(Zeunerweissen)을 작곡한 이 6. 자연수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배열된 각각의 수의 합이 같게 만든 것.

세로

1. 불교의 유식사상을 설파한 법상종 근본경전 7. 어떤 일의 맨 마지막, '○○' 장식했다 8.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뜻으로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절대적 진리 9. 회사에서 내는 광고 10. 중국 당나라의 정사(正史)를 기록한 책 11. 묘향산에 있는 절로 서산·사명 대사가 주석했던 곳으로 유명 12. 시기를 통하여 행진하는 일 13.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이 통과되면 주는 학위 14. 라듐이 알파 붕괴 할 때 생기는 희귀한 기체 방사성 원소로 원자 기호는 Rn 15. 주재라는 뜻의 외국어.